

화려하면서도 슬픈... 가을 채우는 탱고의 선율 속으로

'파고 엘 탱고'

퇴역 댄싱 장교 알 파치노가 무도회장에서 한 여자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능수능란하게 여인을 리드하는 그의 춤은 인상적이다. 이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 있다. 아르헨티나 '탱고의 왕'으로 불리는 카를로스 가르델의 '포르 우나 카베차(Por una cabeza)'다. 음악의 제목은 모르더라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CF에 삽입되고 클래식 음악회에서도 많이 연주돼 들으면 "아, 그 음악" 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은 묘한 매력이었다. 한없이 흥겨운 듯하지만, 그 아래 깔려 있는 우울한 정서는 다양한 감정을 갖게 한다.

'파고 엘 탱고'(Fago El Tango)는 광주에서 탱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유일한 그룹이다. 지난 2009년 결성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어 탱고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룹 이름 '파고'는 스페인어로 '등대'라는 뜻이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탱고 음악을 광주에 등대처럼 비춰보자는 생각에서 지은 이름이다.

전남대 예술학과 음악학과 출신들이 유기 투합한 파고 엘 탱고는 6인조 그룹이다. 리더를 맡고 있는 첼리스트 김국주(31)씨를 비롯해 김수원(25·바이올린), 락다미(24·더블베이스)씨가 창단 멤버로 참여했고 현

재는 김창현(25·피아노), 장평강(29·클라리넷), 윤서아(25·비올라)씨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가장 먼저 탱고의 매력에 빠져 팀을 제안한 이는 김국주씨다. 지난 2004년 라디오에서 우연히 '아디오스 노니노'라는 음악을 들은 게 시작이었다. 이후 요요마의 앨범과 피아졸라의 음악을 찾아듣고 음반을 모으면서 연주단체를 꾸리기 시작했다.

"저희가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탱고 음악에는 클래식과는 다른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탱고하면 먼저 춤을 연상시키는 데 음악으로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희는 연주를 하기 때문에 클래식에 맞게 악기를 편성하고, 악보를 모으면서 지속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었죠. 탱고는 고독한 느낌과 잘 어울리죠. 활기차고 화려하지만 또 슬픈 정서가 있는 음악입니다."

리더 김국주씨는 이후 몇명의 멤버 교체도 있었지만 탱고 음악에 매력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 연주활동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식 공연장 뿐 아니라 호신대 티 브라운 등 작은 카페에서도 탱고를 알리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앞으로 성숙한 연주를 들려주고 탱고 페스티벌 등에서 좋은 음악가들과 연주하는

지역 유일 탱고연주단체

11월5일 문예회관 연주회

반도네온 고상지 협연

꿈도 꾸고 있다.

'파고 엘 탱고'는 오는 11월 5일(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다양한 탱고 음악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율리안 프라자의 '파야도라', 료타 코마츠의 '메자메' 등을 연주하며 '포르 우나 카베차' 역시 만날 수 있다. 또 '탱고 음악의 대명사'로 꼽히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들도 연달아 연주한다. '리베르 탱고', '오블리비언' 등이 주 레퍼토리다.

이번 공연에는 반도네온 연주자로 잘 알려진 고상지씨와 피아니스트 최문석씨가 함께 무대를 빛낸다. 탱고에서는 빠질 수 없는 반도네온을 배우기 시작한 김국주씨가 고상지씨와 협연무대도 마련했다.

티켓 가격 1만5000원(당일 현장 판매), 사전예약 010-4736-43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1월 5일 연주회를 갖는 '파고 엘 탱고' 멤버. 사진 왼쪽부터 락다미·김창현·윤서아·장평강·김국주·김수원씨.

한국의 미래에 나타난 '맥베드'

'칼로 맥베스' 30~31일 광주문예회관

'맥베드' 장군이 한국에 나타났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맥베드'를 새롭게 해석한 '칼로 맥베스'가 광주 연극팬들을 찾는다. 30~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문예회관 기획 공연 작품으로 극공작소 '마방진'이 무대에 올리는 '칼로 맥베스'는 '맥베드'를 스타일리시한 무협 액션극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작품 배경은 영국이 아닌, 한국의 어느 미래다. 원작에서 마녀들은 뎀인술사로 대체되고 노승이 등장, 색다른 이야기를 풀어간다.

파워풀한 액션과 슬랩스틱 유머, 속사포 같은 화술로 관객을 압도하며 역동적인 감싸움 등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군무가 압권이다.

무엇보다 고선웅 연출의 작품이라는 점이 기대감을 높인다.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으로 5월 광주를 다룬 연극 '푸르른 날에'의 연출과 각색을 맡았던 고씨는 개성넘치는 작품 세계로 알려져 있다. 2010년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을 수상했으며 중국 베세토 연극제, 터키 앙카라에서 초청공연을 가졌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문의 062-613-88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 임한귀 씨 위촉

임한귀(50) 전 남양주시립합창단 지휘자가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위촉된다.

임한귀씨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 미국 Westminster Choir College에서 합창지휘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emphis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 고양시립, 안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객원지휘를 하였으며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 겸임교수와 남양주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했다.

임씨는 오는 11월 1일자로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재 공석인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조건 등의 협의가 거쳐 조만간 위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6일 사임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후임도 11월께 공모를 거쳐 2014년 1월에 위촉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무슨 생각 하세요?

국립미술관 내달 10일까지 전현숙 초대전

각시탈을 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유난히도 크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감추려는 표정에서는 무언가에 대한 불안감을,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형화된 조형 언어를 무시한 대담한 필치로 표현된 사람들의 표정과 어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한편의 드라마를 써내는 다양한 사물의 배치가 인상적이다.

국립미술관은 다음달 10일까지 서양화가 전현숙씨를 초대해 'Dance, Flowers!'전을 연다. 전씨의 근작 13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씨의 작품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하다. 그는 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욕망과 꿈, 사랑과 상처, 자기연민이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가 표현하는 것들은 작가의 독백이며 자아성찰의 과정이다. 작가의 이야기는 사회로 확장된다. 사회적 구조 속에서 결정되는 인간의 삶과 관계로 말이다. 독백을 통해 사회를 말하는 것이 전씨의 작품세계다.

전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창작스튜디오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를 지냈으며 신세계미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32-733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재단, 지역협력형사업 워크숍

광주문화재단은 29일 오후 1시부터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2013년 지역협력형지원사업 전문가 초빙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3년 지역협력형지원사업 대상자 및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사업 운영과 정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기획, 보조금 정산, 기금사업 이해, 지원사업 평가 등을 내용으로 4개 강의가 진행된다.

2013년 광주문화재단 지원사업 선정단체 문화예술인 및 단체뿐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670-7442~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홍스페이스

SPACE 가구빌딩

NAVER **홍스페이스** ☎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